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장마가 시작되고, 이곳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올해 더위는 더욱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안과 물가폭등, 식량과 에너지 수급 위기가 이곳에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 가정을 만났습니다. 한 남성이 2주간 정부 허가를 받아 아내와 아이를 피난코자 크로아티아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아내와 아이를 이 곳에 남겨둔 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들의 삶과 고난, 가족의 이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와 상생의 땅이라고 여겼던 유럽의 가치들이 무너지고 서서히 이념과 체제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의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오직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2022년 두 번째 선교 편지를 보내드리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선교사

지난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더욱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고장 나면 입고하여 수리하듯, 육신의 약함은 나를 삶과 사역에서 많은 부분을 중지시키고, 영혼의 공업사로 입고케 했습니다.

활동이 줄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혼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늘었습니다. 주께선 행함이 아닌 거함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아의 행함이 아닌 주 안에 거함'으로 살아야 함은 알면서도, 정작 실제 삶에선 거함보다 행함에 따라 좌우된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와 주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최선은 좋은 것이나, 마른 우물 바닥을 긁어대는 최선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먼저 우물에 물이 들어오길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목상과 기도의 시간이 영혼의 우물에 물이 고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선 약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활동을 중지케 하시고, 내적 성찰과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좀 더 명료하고,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소망 중에 모든 일을 대하게 됩니다. 조급과 불안, 염려와 근심은 성령의 열매가 아님을 압니다. 여전히 내 죄성은 나를 꼬꾸라뜨리고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상과 기도는 나를 더욱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점호병이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하듯, 나 또한 영혼의 점호를 통해 영적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좋은 선배들의 안내를 받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책을 읽고 목상하면서 동일한 길에 있음에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바른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전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복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중보해 주십시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양보나 타협치 않고, 조롱과 멸시, 비난과 외면을 받아도 온유와 인내로 넉넉히 이기게 중보하여 주십시오. 영적 한 몸인 동역자들의 기도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아내 문정미 선교사는 어디를 가면 부쩍 이쁘다는 소릴 듣습니다. 그 말의 제 해석은 '미인(美人)'이라는 말이라기보다 선교지의 수한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웃음과 밝음이 있는 표정이라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 거리를 찾자면 끝도 없을 텐데, 늘 밝고 맑습니다. 고(故) 드라고 목사 사모가 아내를 보고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길래 제가 너스레를 떨며 "Isus je u njoj"(예수께서 그녀 안에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맞다며 맞장구치고 한바탕 웃었지요. 말로 하는 선교보다 향기로 하는 선교가 아름답습니다.



행사 음식 준비(키아라)



비에르바르 이바/흐르보이 가정 방문



페트리나 컨테이너 정착촌 방문



비엔나 한인교회 말씀 세미나 참석

2. 사역

지난 기간 동안, 저의 사역은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중심이었습니다. 개인적 묵상과 기도는 내게 풍성한 은혜로, 학생들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말씀을 알아가는데 사모함을 가집니다. 가르칠수록 복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청중의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 그 귀는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들음은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렇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복된지 깊이 느낍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수십 수백 명의 무리보다, 들을 귀가 있는, 듣고 싶어하는 적은 무리의 소중함을 압니다. 수가 적으면, 주눅이 들고 낙심하고, 스스로가 무능력한 것 같은 세상의 식견을 거부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예정과 선택을 또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선명한 영적 국경이 그어지고, 의의 길과 불의의 경계에서 의에 속한 자가 상대적으로 무척 적음을 압니다. 바른 지식은 낙심하지 않게 하고 다만 내가 주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육신의 출생도 개인의 주권밖에 일이라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도 개인의 주권밖에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요 그의 주권 아래 있으며, 선교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순종함으로 이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읽기 수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학생들, 하나(Hana), 나탈리아(Natalia)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관심을 갖고 나옵니다. 말씀에 귀가 열리고 복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블라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사모함이 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윤리도덕적입니다.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경향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전적으로 깨닫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6월 11일에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졸업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2명의 졸업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학도 아닌데 8학기(4년)를 공부하고 수료한 학생들을 배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밖에 설명 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 다비드는 다음 학기부터 한글학교 정교사가 되어 같이 섬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 이곳 무역회사 인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 요지는 자신의 회사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자그레브 비즈니스 구역에 위치한 회사였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신뢰가 갔습니다. 한국 마켓을 타게팅 하여 무역을 계획 중인데, 담당자가 우리 한글학교를 알고 제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조용히 학교를 도와주십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지속적인 교류를 원했습니다. 학교를 통해 취업도 이뤄진다면, 선교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입니다.



한글학교 봄소풍(2022.5.14)

졸업생 시상식(다비드, 스텔라 2022.6.11)



부활절 즈음(2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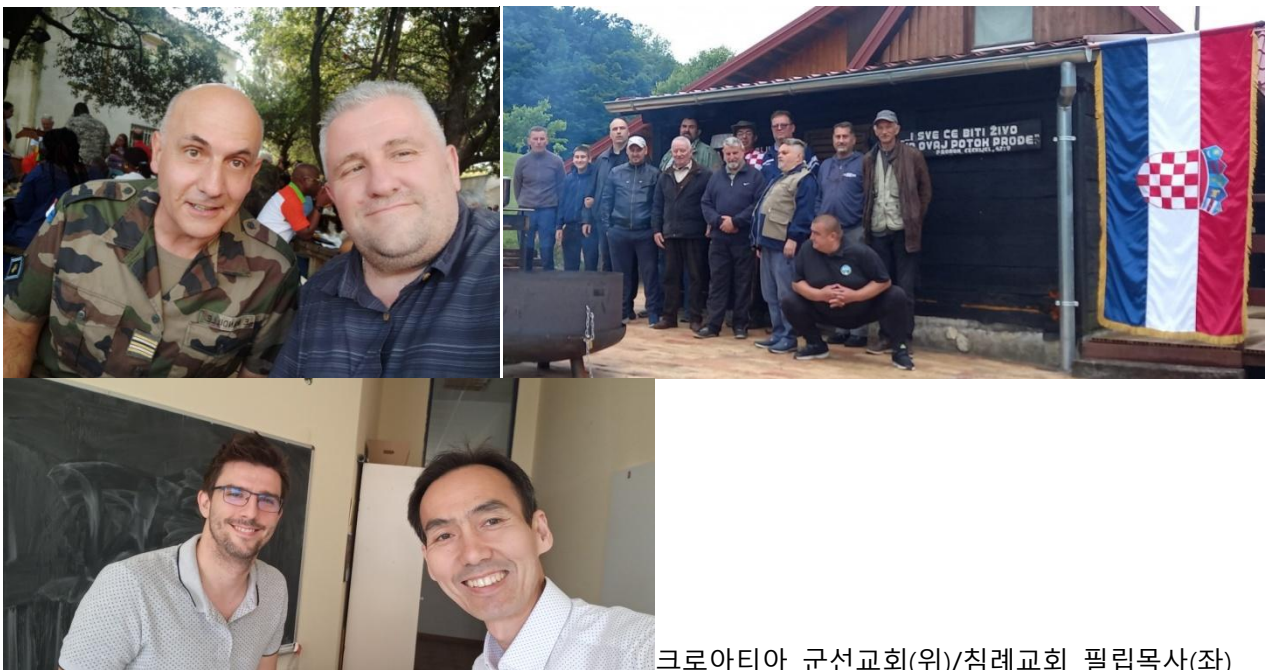
3. 협력 사역

크로아티아 군선교회 협의회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매달 월삭 새벽 온라인 기도회(매달 첫 월요일 6:33)에 종종 참석하는 것 외에는 현재 많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젠과 MCFC와 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예배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임 할 때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대로 된 것은 아픔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가 방치된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신자가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중단, 교회 활동 중지는 원망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촉구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능력이나 지식이 없어도, 영주권 시민권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 한인교회 창립11주년을 기점으로 저는 다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치된 교회 홈페이지를 접수하여, 글과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참된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이 듣고, 모이고, 그 안에서 예배와 축복을 얻길 기도합니다. 방치되고 버려진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 해 주십시오.

주 한국 크로아티아 대사의 요청으로 서울 새벽교회 이승영 원로목사께서 연락을 주셔서, 자그레브 침례교회와 새벽교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두 교회 가운데 은혜로운 협력이 있길 바랍니다.

주일에 지역 교회를 순회하며 교류와 교제를 합니다. 오랜 한인 목회로 인해 좁아진 현지교회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하는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시간이 장래에 더 넓은 협력과 선교의 장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크로아티아 군선교회(위)/침례교회 필립목사(좌)

4. 기도 제목

- 1)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2) 한글학교를 통해 복음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 3) 한글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학생 등록, 재정 자립, 교사역량, 한국어실력)
- 4) 크로아티아 군선교회와 회장 드라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5) 현지교회와 목회자들과의 깊은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6) 한인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7) 저희 가정의 자녀들(영은, 이삭, 영진)의 주 안에서 승리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 학생들



졸업생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한 세계 군선교회 온라인 기도회



선교사 가정 온라인 성경공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

2022.7.5